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죄책감을 안고 있으면, 현재의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삶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그것에 얽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스스로 깨끗이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잊기 위해 때때로 나보다 더 큰 ‘죄인’을 찾곤 합니다. 나의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이웃을 판단하며 더 큰 죄를 찾아내곤 스스로 “나는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위안을 삼으려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에 의한 ‘희생 양’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로움의 기준을 두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이 무척 못마땅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옹아매기 위한 계락을 꾸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놓아주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말대로 그녀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웃의 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든 과거를 털고 의인이 되고 싶다면, 이웃의 허물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예전의 일들을 잊도록 새 일을 마련해주시는 분이며, 제 2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사순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죄에 얽매었던 과거를 털고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부활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상협(그레고리오) 신부

숨기는 죄, 고백하는 죄

오늘 복음이 전하는 사건은 시작에서 부터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만 있고 상대 남자는 없으니까요. 이야말로 꼬여 뒹글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 싶은데요. 주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찢끔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 곁을 떠나갔다는 점에서 도전할 수 없는 진리의 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는 빛이신 말씀 앞에서는 도무지 감출 수 없다는 사실과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며 죄를 감추려 해도 스스로의 양심에 새겨진 까닭에 불가능한 일임을 배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더욱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오로가 생각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1코린 15,9)라고 말하던 그가 이후 에페소 신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나”(3,8)라고 밝히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1티모 1,15)이라고 토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복음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도망쳐 버린 죄인들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했던 여인의 이야기로 대비해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죄를 단죄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여 깨닫게 한 후에 우리의 시선을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오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끌려온 여인을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신 주님께 용서받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 철저했던 만큼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자비와 용서를 얻은 사람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간음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 곁에 머문 이에게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 새깁니다. 주님은 여인의 지난 죄를 캐묻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하시며 그의 앞날과 미래를 염려하십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표시일 수 있다는 두려운 선포라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명심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양심의 가책만 받을 뿐이라면, 주님 앞을 피해서 슬그머니 떠나가고 만다면,결코 구원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는 진리로 새깁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기막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셨습니

다. 지난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니 이제 주어진 날을 제대로 살아가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그날 죄를 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을 던지지 않고 치유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죄의 예방책에 둔하여 다시 죄를 범하고 거듭 죄에 빠졌을지라도 또 새로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의는 인간에게는 늘 모순됩니다.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모순은그분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자비와 사랑으로 그 엄청난 죄를 사해주신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묵묵히 온 땅에 사랑의 계명을 새기고 계십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어서그분 곁으로 나아와 새 삶을 얻으라 하십니다.

이론이나 지성으로 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라 하십니다. 아멘

장재봉 신부

사순절의 기도 손희락 詩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노라
형식에 젖은 입술
신앙고백 드렸지만
순종,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넓은 길 걸으며
당신을 잊은 적 너무나 많습니다
인연으로 묶어주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외식의 웃 입고
경건의 거리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본 당 소 식

◎ 부활절 판공성사 안내

시간은 공히 **오후 4시 부터 미사 전** 까지와

미사 후 1 시간에 걸쳐 **2회** 가집니다.

21일(사순 제 5주일)- 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28일(주님수난성지주일)-고원일 안드레아신부님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4월 4일) 시간이 오후 6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활절을 기념하여 미사 후 친교식사를 갖습니다. 협조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성유 축성 미사 안내

▶일 시; 3월 29일(월) 오후7:30

▶장 소: 해밀튼 주교좌성당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4월 사목회의 안내

다음주 (28일)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3월 구역모임 안내

▶브랜포드 27일(토) 7시 장명길 형제덕

▶워털루 1구역 27일(토) 7시 한택중 형제덕

워털루 4구역 27일(토) 6시 김호철 형제덕

◎ 울뜨레야 3월 모임 안내

▶일시: 오늘 미사 후 교육관

▶문의: 울뜨레야 간사

◎ 꾸르실리스파 야외 십자가의 길 행사 안내

▶일시; 2010년 3월 27일(토) 오후 2시 정각

▶장소; Serena Gundy Park(작년과 동일)

▶문의: 울뜨레야 간사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 일 시 ; 4월 2일(금) 오후 7시

▶ 장 소 : 교육관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사순 십자가의 길 안내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시작

(선도자 명단

3월 21일-워털루4구역장 최우석 F. 사베리오

3월 28일-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성모님동산 기금 헌금을 시작한지 일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교우들의 정성으로 모아졌습니다. 목표치 달성시까지 계속 진행하오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헌금 담당

▶4월 : 워털루 3 구역

▶5월 : 워털루 4 구역

미사 1 시간 전에 성당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 1조로 구성하시어 미사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제 4회 ST. ANTHONY DANIEL PARISH LIFE CENTRE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 시 : 2010년 6월 1일 화요일

장 소 : Grand Valley Golf and Country Club

비 용 : \$130/인 (바비큐 점심, 골프와 카트, 골프 상품, 부페저녁 포함)

문 의 : 이 상희 사무봉사자

2009년 3월 14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30.00 교 무 금 : \$ 260.00 151(240), 161(20) 미사성제 : \$ 10.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20(\$5765.00)
합 계 : \$ 1100.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12호

2010. 3. 21.

사순 제 5 주일

해설 박 명옥

차주 해설 이 명희

성 가

입 당 (517) 내가 절망속에해

봉 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 체 (188) 천사의 양식

되 장 (121) 한 많은 슬픔에

화 답 송 ◎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너그럽고 자비롭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성체 후 묵상 복음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죄를 용서받고 떠났습니다. 환희와 감동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인의 모습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용서의 생활을 다짐합시다

독 서

3월 21일

백옥현

김정숙

3월 28일

서자호

박인선

봉 헌

3월 21일

유종훈

정광숙

3월 28일

백옥현

김정숙

복 사

3월 21일

최예슬

강수현

3월 28일

구하람

노승범